11-147: 바치는 생활을 하라

hdhstudy.com/1961/11-147-%eb%b0%94%ec%b9%98%eb%8a%94-%ec%83%9d%ed%99%9c%ec%9d%84-%ed%95%98%eb%

바치는 생활을 하라
1961.05.12 (금), 한국 전본부교회

11-147
바치는 생활을 하라
[말씀 요지]

12아들로 12대를 연결할 수 있는 심정적 기대를 조성함으로 역사적인 종적 노정에 왔다간 영들이 지상에 협조할 수 있다. 12대로 종적 기준을 세우고 이것을 다시 횡적으로 기대를 세움으로써, 영계에서도 지상의 조건으로 인하여 횡적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아담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수많은 선의 자녀를 희생시켰으므로 그들을 해원하기 위하여 고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지금까지는 축복받을 자녀만은 찾고 재물은 찾지 않았으나 이제는 재물을 찾도록 기도해야 한다.

부모에게 드리는 음식이 부족하더라도 잘 모시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서 발전한다. 날마다 잘 모시려는 사무친 심정을 가지면 생활의 발전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전통으로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제물을 바칠 때에는 아벨을 찾아가서 바쳐야 한다. 3일은 목욕재계하고 바쳐야 한다.

교회에서는 360명을 기준으로 하여 번호를 정하여 세계성을 띠고 바쳐야 한다. 교회에서 아벨로 당선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벨 입장에 있는 인물은 여기에 더 가중하여 제물을 바쳐야 한다. 아벨로 당선되는 사람은 세계 일주의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교회는 커지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교육과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범죄하면 여기에 동참할 수 없다. 자지 않았다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고로 야경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기해야 한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